

불자 세상보기



박상진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

가수 사이의 '강남 스타일'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YouTube)'를 장악하고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것에 대해...

차이에 바로 한국의 전통 문화가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몇 년 전부터 '한류'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어쩌거나 '강남 스타일'의 리듬은 국악인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한국적인 전통 장단을 생각나게 했는데, '휘모리 장단'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는 것은 아니다. 서양 문화는 곧 기독교 문화이지만 그들의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기독교를 떠올리지는 않는다.

발언대

지울 스님 다큐 1만 명 돌파

환경 운동가로 잘 알려진 지울 스님이 감독한 다큐 영화 '모래가 흐르는 강'이 누적 관객 수 1만 명을 돌파했다.

생명평화 운동의 전환점 되길

지난 3월 14일 한국불교의 대표종단 조계종 총무원이 지울 스님이 감독한 다큐 영화 '모래가 흐르는 강'의 시사회를 개최했다.



부나 대기업이 하면 어쩔 수 없다거나, 완공된 사업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전도공상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타파해 나가야 한다.

환경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만 이를 개선시키거나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삶이 그대로 강이 된 지울스님

의지가 스님의 뜻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스님에게 죄송스러웠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는 강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 강은 그야말로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이병인 부산대 교수 (조계종 환경위원)



조계종 사회국장 성원 스님

진정한 행복과 자비 넘치는 봉축을

4월 23일 광화문 봉축 점등식을 시작으로 봉축위원회가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인 올해의 봉축 표어는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이다.

듣기 및 연등행렬관람 행사를 지원한다. 지난달 취임한 새 교황 프란치스코 1세는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야 한다"면서...

민관연대 어린이집, 불교계 관심 가져야

오는 4월 30일 서울 성북구 적조사에 새로운 개념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선다. 적조사가 위탁 운영하는 가람어린이집은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관공동연대 방식의 어린이집으로 불교계에서는 적조사가 최초로 개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교계의 참여는 저조하다. 지난해 선정돼 종교 단체의 부지나 건물을 제공받아 설립되는 민관연대 어린이집은 22곳이다. 이중 17곳이 개신교 교회이며, 4곳만이 사찰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혜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최낙관.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12품 팔상탐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성지관음회.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